

#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안겨주시어

지난 5월말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는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최고결의기관인 전체대회가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총련을 강화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상승곡선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전환적기회를 안아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해외동포운동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그토록 분방하신 속에서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친히 강령적지침을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라!》를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과 총련부흥의 휘황한 설계를 펼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한에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새 전성기개척을 위한 지난 10여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크게 약진하였으며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명마루를 향해 나아가는 전면적발전에 들어섰다고 하시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단계적중 등호중중의 맞을 하나로 모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시기를 총련의 기본인무로 제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련의 모든 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 일관시키고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키며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준비를 일일

키데 대해서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해주셨다. 또한 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인 사한을 받아안고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방면대전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령적인 사한까지 보내주시었으니 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재일동포운동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계시기에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총련의 애국애국운동을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시는 불세출의 위인을 모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은 전면적발전에 확고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후대교육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시어 총련애국운동의 미래는 창창합니다.》, 《저는 위대한 김정일시대에서 사는 해외공민으로서 반동일세력의 책동을 규탄, 배격하기 위한 정치선전사업을 더욱 강도높이 벌이며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갈 것입니다.》라고 자신들의 격동된 심정을 이구동성으로 토로하셨다.

참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오늘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은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더 높은 명마루를 향해 나아가는 전면적발전에 들어섰다고 하시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단계적중 등호중중의 맞을 하나로 모아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시기를 총련의 기본인무로 제시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련의 모든 활동을 동포제일주의로 지향, 일관시키고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강화발전시키며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준비를 일일

키데 대해서와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명시해주셨다. 또한 이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들도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화발전을 위해 그러도 다음 세오신분이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주체101(2012)년 7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련 지방일군대회에 역사적인 첫 축전을 보내주시어 재일조선인운동이 들고나갈 강령적지침, 필승의 보검을 마련해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총련 제23차 전체대회, 총련 결성 60돐, 조선대학교창립 60돐, 《총련문화대표자대회-2020》를 비롯하여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역사적단계마다 총련에 축전과 관련한 사안들을 보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던대로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을 즐기게 전진시키거나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디.

어머니조국과 한민족을 잊고 사는 친형제, 한집안사촌,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이라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해외공민도 지니면 적 없고 불리워보지 않는 가장 값높고 뜨거운 믿음, 열렬하고 진실한 혈연의 정도 거들거들 부어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꽃피워 주신 주체적민족교육의 대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가꾸어 주시려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국가교양도 안겨주시며 총련의 애국애국운동을 크게 고무해주시고 올해의 2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에서 해외동포민족교육법을 채택하도록 해주시어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조국의 법적조항에 철저히 보장하는 각별한 조치까지 취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정경 함께 있는 자식보다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때문에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재일동포들의 삶과 행복, 앞날을 따뜻이 보살펴 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입니다. 야말로 총련의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머니이시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 숭고한 동포애로 재일동포들을 따뜻이 보살펴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총련은 이역의 하늘가에 탐승공화국기를 휘날리며 애국애국의 선각자,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서의 존엄과 영예를 더욱 만방에 펼쳐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 《조선음악의 축전 2022 도표 -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 진행

어머니 조국을 그리며

지난 5월 22일 《조선음악의 축전 2022 도표-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가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은 공화국의 명곡들을 통해 예술인들과 동포들이 간직하는 조국사랑을 공유하는 귀중한 마당으로 되었으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생 80돐을 맞이한 민족사적대경사의 해를 뜻깊게 장식하였다.

이번 축전에는 문예동맹원들을 비롯한 동포예술인, 애호가들 약 170명이 출연하여 조선의 명곡들과 재일동포가 창작한 곡들 총 13곡목을 연주하였다. 재일동포 2세로부터 5세까지의 폭넓은 세대가 출연하였다.

공연을 총련중앙과 총련 도쿄본부, 조선대학교, 도쿄교고를 비롯한 각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약 700명의 동포들이 관람하였다.

공연은 문예동맹중앙 유승진위원장의 지휘에 의한 취주악합주 《김정일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그리고 《조국찬가》로 장중히 막을 올렸다.

귀익은 선율이 도쿄 한복판에서 울리는것으로 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 제1부에서는 취주악합주 《백두의 발발소리》, 《너희들이 가방안에》가 연주되었다. 도쿄조선취주악단, 조선대학교 취주악부, 도쿄교고 취주악부, 가나가와현중고 취주악부가 출연하였다.

여성2중창 《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로 시작한 제2부는 남성독창 《내 고향》, 혼성중창 《불타는 소

원》, 소해금독주 《사랑에 대한 생각》, 민중기악합주 《해당화》, 《경축》,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로 이어졌다. 금강산가극단과 도쿄조선가극단의 성원들, 조선대학교, 도쿄교고, 가나가와현중고, 도쿄제5초중을 비롯한 학생들과 여성동맹민족관련학부, 민중기악중주단 《민악》의 성원들, 문예동맹경연대회수상자, 애호가들이 출연하였다.

제2부에서는 조국의 사랑을 절절히 노래하면서 그 사랑속에서 꽃피는 동포사회의 밝은 미래를 펼쳐보았다.

특히 약 80명의 대규모합동악단으로 연주된 민중기악합주 《경축》은 압도적인 박력과 화음으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공연장의 분위기는 《청산별에 풍년이 왔네》로 절정에 달하였다. 우렁찬 박수속에 제정의 환호가 오르는 공연은 관현악과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관람자들은 출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경의를 표하였으며 《민족의 긍지를 다시금 간직하게 되었다》, 《제연을 기대한다》, 《음악의 힘을 느꼈다. 시련을 이겨낸 끝에 흥하는 동포사회가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포예술인들의 굳센 의지를 보았다》, 《조국의 사랑을 떠올리며 눈물을 금할수 없었다》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조선음악의 축전 2022 도표-조국의 사랑은 파사로워라》는 위인칭송과 조국사랑이 분출한 감동깊은 음악회로 장식되었다.

본사기자



## 통일을 불러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1)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 그는 태권도로 민족을 위한, 통일을 위한 삶을 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무도인이었다.



최홍희선생

태권도련맹 총재였던 최홍희선생, 그는 태권도로 민족을 위한, 통일을 위한 삶을 산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무도인이었다.

이것이 후날 태권도를 만들수 있게 한 기초로 되었다고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곤 하였다.

너무도 작고 여윈듯한지 선생은 어린시절 때없이 병에서 사달려 죽을고비도 여러번 넘겼다.

이것이 후날 태권도를 만들수 있게 한 기초로 되었다고 선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곤 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일제는 급속도로 소모되는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에 들어와서부터는 대학 또는 전문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까지 모조리 끌어냈다.

이것이 그가 태권도에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때의 심정을 선생은 이렇게 표현하였다. 《...인간의 생명이 잠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후세에 발자취를 남길수 있겠는가.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이것이 그가 태권도에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것이 그가 태권도에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것이 그가 태권도에 들어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한 후 통일부가 《북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공통선언리행을 거부하며 대결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동족대결의 물적대로 나선 범죄적망동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1960년대 사회적진보를 위한 혁신정당들의 출현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중의 열의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진보적인 정치세력인 혁신정당들이 광범히 대두하였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한 후 통일부가 《북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공통선언리행을 거부하며 대결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한 후 통일부가 《북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공통선언리행을 거부하며 대결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한 후 통일부가 《북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공통선언리행을 거부하며 대결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한 후 통일부가 《북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공통선언리행을 거부하며 대결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한 후 통일부가 《북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공통선언리행을 거부하며 대결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한 후 통일부가 《북비핵화》를 《대북정책》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북남공통선언리행을 거부하며 대결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1960년대 사회적진보를 위한 혁신정당들의 출현

4.19인민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대중의 열의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진보적인 정치세력인 혁신정당들이 광범히 대두하였다.